"국민의당과 협치…호남 예산 반영 주력"

민주 오늘 광주서 호남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객관적 사실 알리는데 총력… 낮은 자세 임해

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예산정책협의회 에서 국민의당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낮은 자세로 임하기로 했다. 국민의당과 협치를 염두에 둔 입장 으로 읽힌다.

민주당은 27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광주시 ·전남도와 예산정책협의 회를 갖는다. 두 번의 연기를 거쳐 마련한 이 협의회는 두 지역의 국비 예산 지원 등 을 논의하는 자리다.

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향후 협치를 위

해 국민의당이 제기하는 이른바 '사회간 접자본(SOC) 호남 홀대론' 등에 직접 대 응하지 않고 대신 집권여당으로서 호남 발전에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

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6일 호남 SOC 예산 문제와 관련, "호남 방문 시 내년 사 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수준까지는 반영 돼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데 주력 한다는 방침"이라면서 "네거티브하게 누

구를 비판하기보다는 포지티브하게 집권 여당의 입장을 알리는 데 주력할 것"이라 고 말했다.

다른 관계자도 "내년도 예산안에서 전 반적으로 SOC 예산이 줄었다는 점을 알 리면서 동시에 호남 SOC 사업 추진에 당 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할 것"이라면서 "국민의당과 협조해 호남 예 산을 국회에서 잘 반영하겠다고 강조할 예 정"이라고 밝혔다.

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는 국민의당의 호 남 SOC 홀대론에 강력히 반발했던 이전 모습과는 상반된 것이다. 그만큼 정치 환 경이 변한 것이다.

민주당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호남

을 방문해 호남 SOC 홀대론을 반복해 언 급하자 "지역홀대론은 정치 적폐"라며 강 력히 반발한 바 있다.

민주당 지도부는 애초 지난 5일과 15일 에 광주를 방문, SOC 홀대론 주장에 정면 대응할 예정이었으나 김이수 전 헌법재판 소장 후보자 표결 문제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문제로 정국이 꼬이면서 두 번 다 연 기했다가 이번에 일정을 다시 잡았다. 그 사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민주당 내에서 도 국민의당과의 협치 제도화 필요성이 강 하게 제기되고 있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해남 구성지구 간척지 식생복원 사업 전국 최고

우수 산림복원대전 대상

영암해남관광레저형 기업도시(솔라 시도·옛 J프로젝트) 사업지구인 해남 구 성지구의 간척지 식생복원 사업이 전국 최고로 평가받았다.

전남도는 해남 구성지구 내 간척지 식 생복원 사업이 '2017년 전국 우수 산림복 원대전' 대상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.

구성지구는 영산강 하구에 위치해 토 양 염분이 높고 척박하며 해풍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간척지 특유의 생태환경을 가진 곳으로, 전남도는 이 같은 불리한 수목 생육 환경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복 구 공법을 도입했다.

염분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소류지 2 곳을 조성하고, 충분한 복토와 마운딩 처리로 수목의 뿌리 생육을 원활하게 했 다. 토양 수분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수목 폐기물을 활용한 우드칩 멀칭을 하

고, 단계별 방풍책 시설로 안전한 생육 공간을 확보했다. 또 수목 구성도 해송 위주의 틀에 박힌 단순함에서 벗어나 남 해안 지역에서 주로 자생하는 후박, 동 백, 구슬잣밤나무, 종가시나무 등을 혼 합하는 자연식생복원 방식을 도입했다.

전남도는 지난 2014년부터 총 25억원 을 들여 20ha를 조성했으며, 잔여 복원 지역은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.

한편, 전국 우수 산림복원대전은 산림 복원 정착 및 우수 복원 사례 발굴·확산 을 위해 한국산림보전협회가 매년 실시 하는 것으로, 올해는 전국 시·도와 산림 청, 국립공원관리공단, 한국광해관리공 단 등 산림 복원사업을 시행한 8개 기관 이 참가했다.

지난해에는 산림청 산하 서울국유림 관리소가 시공한 휴전선 '민북지역 산림 복원사업'이 대상을 수상했다.

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

영산강Ⅳ지구 농업개발사업 2027년 완료 예상

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김영록 장관에 농정 반영요청

전남의 숙원인 영산강IV지구 농업개 발 사업이 오는 2027년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25 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김영록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을 면담하고, 전남 농정의 주요현안 사업을 정부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.

이 권한대행은 요청한 현안 사업은 ▲ 영산강IV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▲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▲첨단 스마

트팜단지 조성 ▲국립 농산업 지능경영 지원센터 건립 ▲친환경 벼 공공비축미 곡매입등5건이다.

이 권한대행은 "영산강IV지구 사업은 착공 후 17년이 지난 현재 42% 수준으 로 저조한 실정이어서 국고 반영이 절실 하다"고 강조했다. 또 매년 반복되는 전 남 서북부권의 가뭄 피해에 대한 항구적 대책 마련을 위해 매년 500억 원 규모의 국비 예산도 건의했다.

이에 대해 김 장관은 "영산강IV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은 2027년까지 완 료 계획으로 예산을 투자하겠다"고 약

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

최영호 남구청장 광주시장 출마 선언

"젊은 광주 만들 것"

최영호(52·사진) 광주 남구청장은 26 일 "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 를 결심했다"고 말했다.

최 청장은 이날 남구청 소회의실에서 광주·전남 상생발전 토론회 사전 브리 핑을 열어 "광주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다"며 이같이 밝혔다.

그는 "지금까지 명망가 중심으로 60 대 중후반 나이의 광주시장을 뽑아왔지 만 이젠 젊은 광주를 만들어가야 한다" 며 "민주화와 산업, 경제, 미래를 이끌 어가는 일을 젊은 사람이 해야 한다"고

또 "적만 광주에 뒀을 뿐 재산이나 가 족이 서울에 있는 분들이 애정 갖고 지

A DEC WAREIN

역에 올인 할 수 있 겠느냐"며 "연방제 선언에 준하는 자치 분권을 담은 개헌이 있을 텐데 저는 풀뿌 리부터 광주와 함께

해온 사람"이라고 강조했다. 현역 윤장현 시장에 맞설 경 쟁력으로는 '행정 경험'을 강조했다. 최 청장은 "윤 시장이 열의는 좋지만 큰 행 정 경험은 없다"며 "사안이 생겼을 때 행정 기술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, 장 기적으로 관리할 것은 관리했어야 했는 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"고 말했다.

재선인 최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으로 광주시의원과 광주 남구의원 등을 지냈다. /김한영기자 young@



6·10민주항쟁 기념표석 제막식

26일 광주시 동구 금남공원에서 열린 6·10민주항쟁 기념표석 제막식에 참석한 김종식 광주시 경제부시장,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, 장휘국 교육감 및 6월민주항쟁30주년광주전남행사위원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. 〈광주시교육청 제공〉

완도에 영화관이 문을 열었다. 1981년 완도극장 폐관 이래 36년만에 영화관이 재개관했다. 개봉작은 일본군 위안부 문 제를 다룬 나문희 · 이제훈 주연의 '아이 캔 스피크'다.

전남도는 영화관이 없는 농어촌 주민 을 위해 건립하는 '작은영화관' 4호점으 로 완도에 '빙그레 시네마'를 개관했다고 26일 밝혔다.

빙그레 시네마는 10억원을 들여 완도 문화예술의전당 문화동 2층을 리모델링 해 2개관 98석을 갖췄다.

관람료는 일반 영화관보다 저렴한 5000원(3D 8000원)이며, 작은영화관 사

36년만에 완도에 영화관 들어섰다

전남도 작은영화관 4호점 '빙그레 시네마' 개관

회적협동조합이 위탁 운영한다.

농어촌 주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추 진된 작은영화관은 2015년 10월 장흥, 2016년 2월 고흥, 올해 7월 진도에 문을

지난달까지 장흥 작은영화관은 12만 8000명이, 고흥은 9만5000명이 영화를

관람했으며, 가장 최근 문을 연 진도에 서도 40일 만에 관람객 1만명을 넘어섰

공공성을 강조한 영화관이지만 지난달 까지 3곳 모두 영업이익을 내 지역에 활 기를 불어넣고 있다.

전남도는 곡성, 보성, 화순, 강진에 추

가로 작은영화관을 열 계획이다. 나주와 무안에는 민간 영화관이 건립 중이어서, 전남 22개 시·군 가운데 15곳이 영화관 을 갖게 될 전망이다.

이는 지난 2014년 목포, 순천, 여수 등 3곳 밖에 없었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 다.

정순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"작은영화관이 영화도 보고, 가족·이웃 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"며 "지역민들이 폭넓은 문화생활을 즐기도 록 문화시설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"고 말 했다.

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



'건강'과 '아름다움'을 모두 잡은

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









- 한국, 미국, 일본,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
-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
-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(별단면육각형)
- 특수 물질가공(원적외선, 음이온 방출)

(주)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**1588-2219**



아모르이온 브라+슈트+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



아모르이온 롱바디 브라+슈트+거들+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



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



